

시지정문화재(기념물/사적)

쇼와 41(1966)년 2월 22일 지정

소유자: 료겐지 절

## 종루당 터 부속 화시계 쇼쿠산진 글

에도시대 교호 연간(1716~1736), 도쿠가와 막부는 후나바시에 대포 시험발사장을 설치했습니다. 료겐지 절 본당의 남서쪽 언덕에 대포대의 대좌가 있었다고 전해지며, 여기서 야쓰 후지사키 방향의 송림과 별판을 향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. 이를 폐지했을 때 그 자리에 종루당이 세워져, 막부에서 '시간의 종'으로 공인되었습니다. 그 후 메이지 4(1871)년에 폐지될 때까지 후나바시 일대에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.

이 '시간'의 기준이 된 것이 당 절에 보존되고 있는 화시계입니다. 이 화시계는 유기 제품으로 에도시대 중기(18세기)의 작품이라고 합니다. 시각은 반각(약 1시간)마다 종을 두 번 울리는 니초텐푸로, 지침은 고정되어 있고 문자판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. 동력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이용해 쇠사슬로 두 개의 톱니바퀴를 서서히 돌리는 장치로 되어 있어 매우 희귀하며, 당시는 시계를 '자명종'이라고 불렀습니다.

또한 료겐지 절에는 후나바시에 숙박했을 때 이 종소리를 듣고 읊은 쇼쿠산진 오타난포(1749~1823) 자필의 교카 시가 족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

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